

i-KIET 산업경제이슈

제 62 호
| 2019-03 |
2018.3.11.

수출주도형 성장, 지속가능한가 - 글로벌 교역 둔화 시대의 성장전략 -

요약

한국경제는 경제개발 이후 수출이 GDP보다 두 배 가까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전체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수출주도형 성장 기조를 지속

그러나 최근 세계교역의 둔화 추이와 더불어 수출증가율이 크게 낮아지면서, 수출의 성장견인 역할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

- 최근 5년간의 평균 수출증가율은 GDP 성장률보다 낮으며, 특히 2014~2017년간은 통계 작성 이후 최초로 4년 연속 수출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하회
- 세계 교역환경을 고려할 때 수출의 저성장 기조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

향후 한국 수출이 IMF의 세계교역 증가율 전망치 수준의 증가세를 유지한다면 수출의 성장견인 역할은 지속될 수 있겠지만, 그 경우에도 수출의 성장기여율은 과거에 비해 상당 폭 축소될 것

- 상기 수출증가율 가정하에서 한국경제가 잠재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수출 부문의 성장기여율이 금융위기 이전 대비 13%포인트 내외 확대될 필요

민간소비의 활성화를 통해 소비가 수출의 성장기여율 하락을 보전하면서 성장 견인역할을 나누어 맡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

- 지난 정부의 경우 주택투자 부양을 통해 수출부진을 보전하고자 하였으나 이는 부동산경기 과열과 가계부채 급증이라는 부작용을 낳음.
- 한국경제는 민간소비/GDP 비중이 OECD 중 가장 낮은 편이란 점에서 소비확대의 여지가 크고, 성장의 포용성이란 측면에서도 소비의 역할 확대가 바람직

그동안 민간소비는 경제성장률을 밀도는 저성장 기조를 장기간 지속하여 왔다는 점에서, 소비가 수출과 더불어 성장의 견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출증가율, 경제성장률을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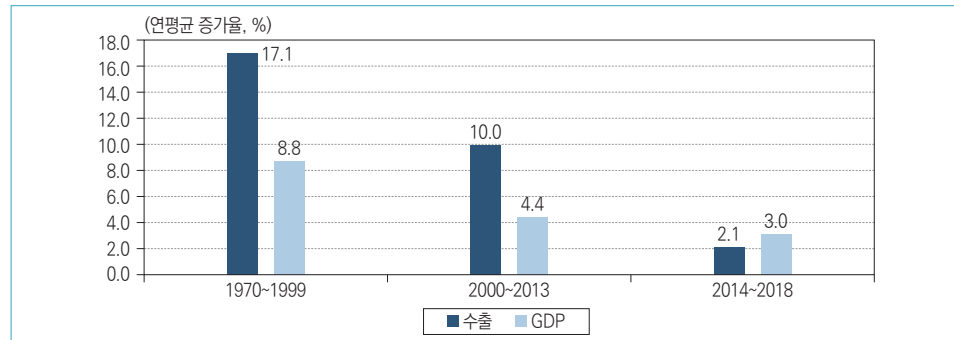
한국경제는 그동안 수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전체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수출주도형 성장 전략을 견지

● 경제개발 초기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실질 수출은 GDP보다 두 배 가까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경제성장의 엔진 역할을 수행(그림 1) 참조)

그러나 최근 세계 교역둔화와 더불어 2014년경 이후 수출증가세가 크게 낮아지면서 수출 주도형 성장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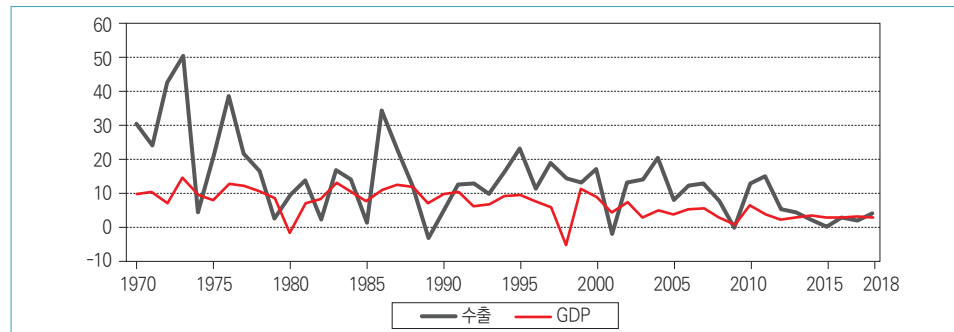
- 특정 부문이 전체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면서 동 부문의 성장률이 적어도 잠재성장률과 같거나 그 이상의 수준을 유지할 필요
- 최근 5년간의 평균 실질수출 증가율은 이전 기간의 1/5 수준으로 경제성장률보다 낮으며(그림 1) 참조), 특히 2014~2017년간은 통계작성 이후 최초로 4년 연속 수출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하회(그림 2) 참조)⁰¹⁾
- 수출증가율이 경제성장률에 못 미친다면 수출의 성장엔진 역할은 기대할 수 없음.

그림 1] 기간별 수출증가율과 경제성장률 비교



자료 : 한국은행 ECOS.

그림 2] 수출증가율과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 한국은행 ECOS.

01) 2018년은 수출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4%의 증가를 보였으나, 동기간 중의 반도체 특수과 선후진국 경기의 동반 회복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증가세의 지속 여부에 불확실성이 큰 편

수출 저성장 추세, 향후에도 지속 전망

최근의 수출부진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며, 글로벌 교역 둔화가 주된 원인

- 1980년대 말에서 금융위기 이전까지 세계교역 증가율은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지만, 금융위기 이후에는 세계 경제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그림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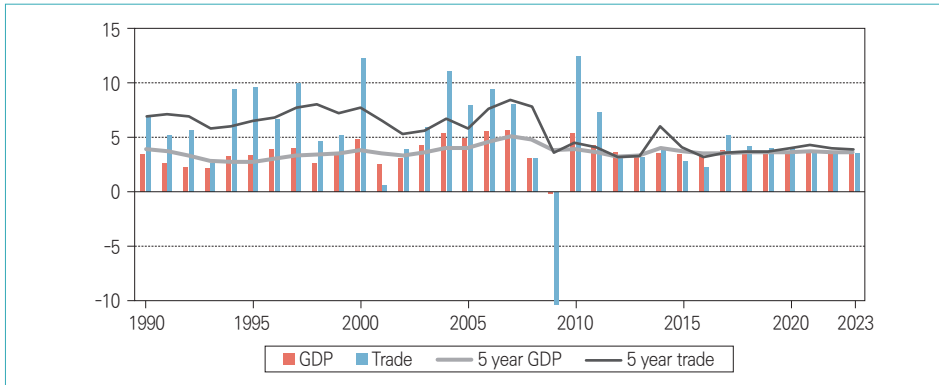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교역 둔화는 구조적 변화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세계교역 및 우리 수출의 부진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

- 세계교역 둔화는 국제가치사슬 확대 추세의 둔화, 중국경제의 구조변화 등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02]}

최근의 추이를 고려할 때 세계교역 부진은 향후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존재

-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반세계화 여론의 확대와 그에 따른 보호무역 기조, 미중간 헤게모니 분쟁 등은 세계교역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일부에서는 20세기 초 영국과 독일의 헤게모니 분쟁이 1차 세계화의 종언을 가져온 것처럼 미중 분쟁이 본격적인 탈세계화(degloabalization)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03]}

그림 3] 세계교역 증가율과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



자료 : IMF.

주 : 2018년 이후는 전망치, 5 year GDP(Trade)는 이전 5년간의 평균 증가율.

수출주도형 성장 지속 가능하더라도 수출의 성장기여율 축소 불가피

향후 한국 수출이 IMF의 세계교역 증가율 전망치 수준의 증가추세를 유지한다면 수출의 성장 견인 역할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향후 한국 수출이 IMF의 세계교역 증가율 전망치(2019~2023년 연평균 3.9%) 수준으로

02] 강두용·정인환(2015), "수출둔화, 구조적 현상인가" E-KIET 613호 참조.

03] Rana Farooqar(2019), "US-China conflict echoes Europe's past", Financial Times.

증가한다면 수출증가율이 한국의 잠재성장률(2%대 후반으로 추정)에 비해서는 유의하게 높다는 점에서 수출의 성장 견인 역할은 지속 가능⁰⁴⁾

하지만 금융위기 이전에 수출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두 배 가까이 상회한 것과 비교하면, 이 경우에도 수출의 성장기여율은 과거에 비해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

그동안 경제성장을 주도해 온 수출의 성장기여가 큰 폭으로 하락한 상황에서 전체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수출부진을 보전할 다른 수요부문의 성장기여 확대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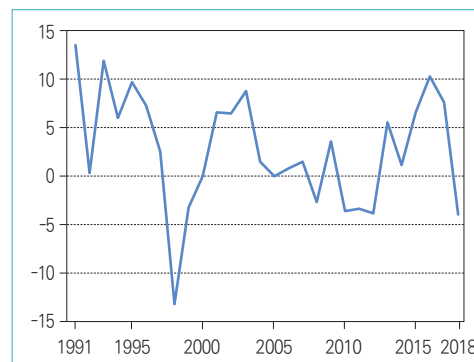
- 향후 한국 수출이 IMF의 세계 교역증가율 전망치와 같은 증가세를 유지할 때 부가가치 수출의 연간 성장기여도는 금융위기 이전(2000~2008년 평균) 대비 1.5%포인트 하락하고, 향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과 같다면 동 성장기여율은 금융위기 이전 대비 약 13%포인트 하락⁰⁵⁾
- 이는 상기 수출증가율 가정하에서 한국경제가 잠재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수요부문의 성장기여율이 약 13%포인트 높아져야 함을 의미

지난 정부는 주택투자 부양을 통한 수출부진 보전을 추진

2014년경 이후의 수출부진에 직면하여 당시의 박근혜 정부는 주택 건설투자 부양을 통해 수출의 성장기여 하락을 보전하는 정책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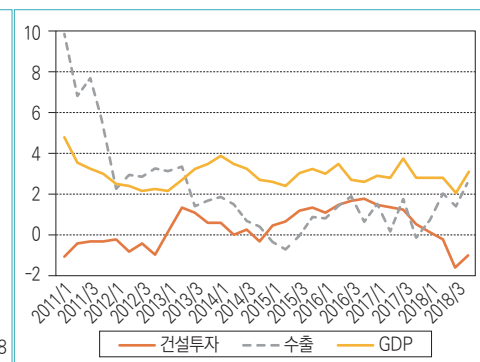
- 이같은 정책의 결과 건설투자는 2015~2017년간 연평균 8.2%의 높은 증가를 보였고, 이는 1993~1995년 이래 20년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

그림 4] 건설투자 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ECOS.

그림 5] 건설투자와 수출의 성장기여도 추이



04) 다만 최근 IMF 전망은 실제 세계교역 증가율에 비해 낙관 편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 수출이 IMF 전망치 수준의 증가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05) 부가가치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단순 수출의 성장기여도*수출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로 구하였고, 잠재성장률은 2.7%로 가정. 성장기여율 하락 폭은 상기 가정하에서 구한 부가가치 수출의 성장기여율과 금융위기 이전 부가가치 수출의 실제 성장기여율 간의 차이.

- 특히 2016년의 경우 건설투자는 10.3% 증가하여, 전체 경제성장의 약 52%를 건설투자가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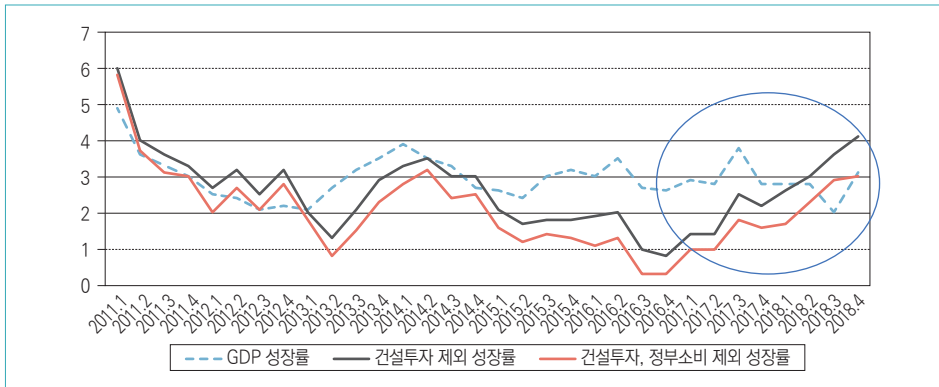
하지만 건설투자 주도의 성장은 지속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부동산 경기과열과 가계부채 급증이라는 부작용을 초래⁰⁶⁾

- 우리나라의 건설투자/GDP 비중은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건설투자 주도의 성장은 지속되기 어려움

실제로 2015, 2016년 건설경기 과열의 후유증으로 2017년 하반기 이후 건설투자가 급감하면서 최근 성장률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

- 건설투자를 제외할 경우 최근 경제성장률은 2016년 말 이래 상승추세로 2018년 4분기가 2011년 2분기 이래 최고 수준(그림 6) 참조)

그림 6] 건설투자를 제외한 성장률 추이



자료 : 한국은행 EC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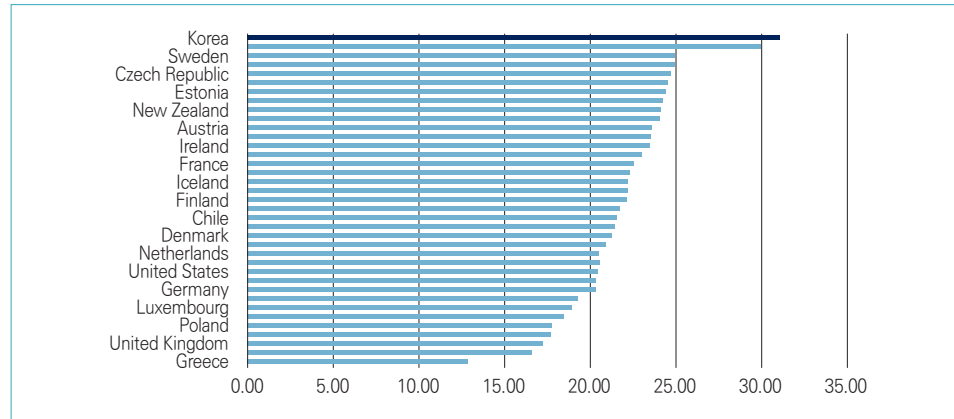
민간소비의 성장기여 확대를 통한 수출부진 보전이 바람직

우리나라 경제구조에 비추어 투자주도의 성장은 실현 가능성이나 지속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소비의 활성화를 통해 수출의 성장기여 하락을 보전하는 방향으로의 구조전환이 필요

- 우리나라는 GDP에서 차지하는 투자의 비중이 OECD국가 중 가장 높아 향후 투자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여지가 작은 편(그림 7) 참조)
- 또한 인구구조 변화, 對선진국 생산성 캐치업 등으로 우리나라 성장률은 둔화 추세로서, 투자의 가속도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성장 둔화 추세 속에서 투자가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기는 어려움.
- 소비가 수출과 더불어 성장의 견인역할을 나누어 맡는 구조를 지향할 필요

06] 강두용·민성환(2016), "최근 실물경기의 건설투자 의존구조 : 문제점과 정책적 함의", E-KIET 633호 참조.

그림 7] OECD국가의 투자/경상GDP 비율 비교(2017년 기준)



자료 :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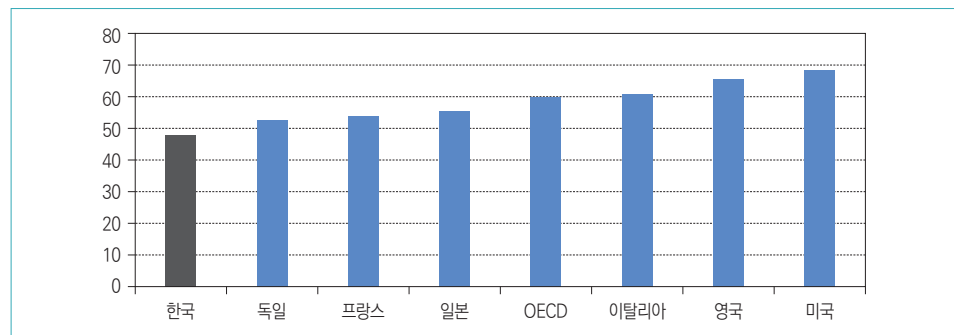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민간소비/GDP 비율이 OECD 내에서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하고 경상수지도 대규모 흑자기조를 지속 중이라는 점에서 소비확대의 여지가 많은 편

- 우리나라의 민간소비/경상GDP 비율은 48% 수준으로 우리와 경제구조가 비슷한 일본이나 OECD 전체 평균에 비해 7~10%포인트 낮음(〈그림 8〉 참조)
- 우리나라는 2015~2017년의 3년간 평균으로 GDP 대비 6.6%에 달하는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 중

소비주도의 성장은 국민후생과 보다 직결되고 좀 더 포용적·균형적인 성장을 낳을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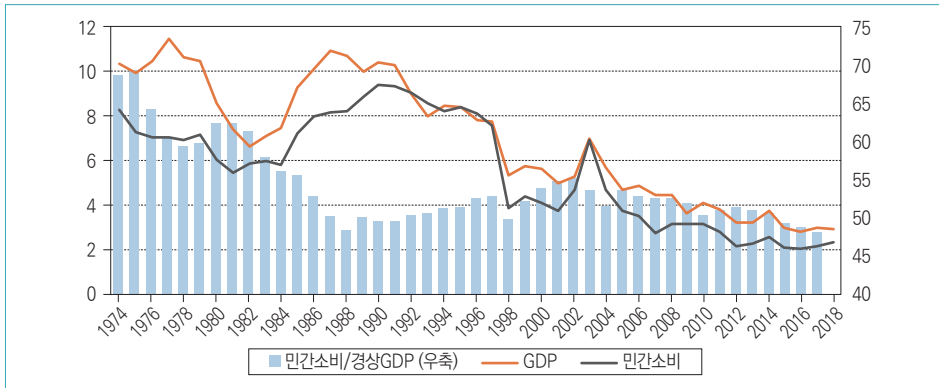
- 경제활동의 궁극적 목적이 소비란 점에서, 소비주도의 성장은 국민후생 증진에 보다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
-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저소득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추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성장의 포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
- 산업별로는 서비스의 소비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소비 활성화는 서비스산업 성장 촉진과 제조업·서비스 간 불균형 완화에 기여할 것

그림 8] 민간소비/경상GDP 비율 국제 비교(2017년 기준)



자료 : OECD.

그림 9] 민간소비 증가율과 경제성장률 비교



자료 : 한국은행 ECOS.

주 : GDP와 민간소비는 이전 5년간 평균증가율.

소비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 필요

그동안 우리나라 민간소비는 GDP 성장률을 상당 폭 하회하는 낮은 증가세를 장기간 지속하면서 상대적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그림 9) 참조)

- 2000~2018년 기간 중 민간소비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0.8%포인트 하회
- 소비 저성장은 가계·기업소득 간 성장 불균형에 따른 가계소득 부진과 인구구조 변화와 가계부채 부담 등에 따른 소비성향 하락에 기인

이같은 소비 저성장 구조를 타파하고 소비가 성장을 견인하는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

- 기존의 소비 저성장 구조로부터 소비가 성장의 엔진 역할을 하는 구조로의 전환은 소비 증가율의 유의한 확대를 요구
- * 예컨대, 수출부진을 모두 민간소비 증가로 보전할 경우(수출의 성장기여율 하락 폭 만큼 민간소비의 성장기여율을 2000~2018년 평균 대비 높이고자 할 경우), 2%대 중후반의 경제성장 가정 시 민간소비가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 내외 상회하는 증가세를 당분간 지속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
- 장기간 고착화된 소비부진 구조하에서 큰 폭의 소비 증가세 확대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

소비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은 소비 저성장의 원인인 가계소득 부진과 소비성향 하락 문제에 대응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 계층의 구매력 확대 지원과 고용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
- 고용과 가계소득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는 점에서 일자리 창출 노력이 가계소득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
- 가계에 대한 직접적 소득지원 정책은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 계층에 초점을 맞출 필요

* 예컨대, 노인 빈곤율(48.8%)이 OECD 최고 수준이고 노후 빈곤 우려가 소비성향을 낮추는 요인의 하 나란 점을 고려하여, 노인가구에 대한 소득지원에 역점을 두는 정책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

수출부진 타개, 재정의 경기활성화 지원 노력도 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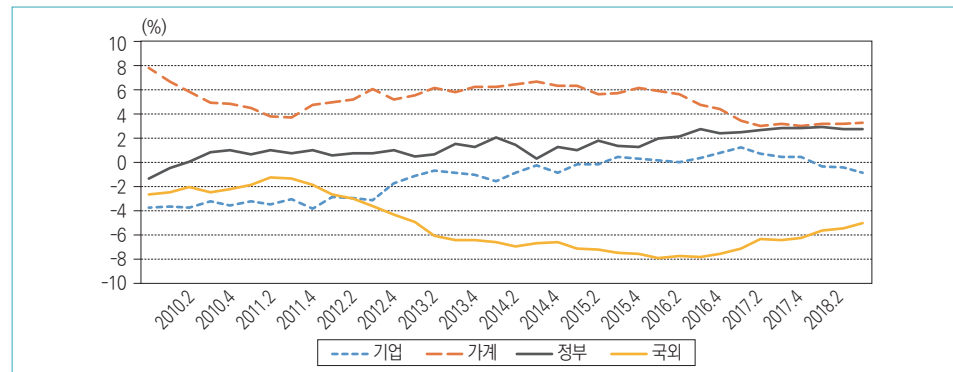
한편 불리한 세계 교역환경 속에서 수출둔화 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중요

- 제품 고도화를 위한 혁신 노력 강화, 상대적으로 교역환경이 양호한 인도·아세안 등의 시장 확대, 미중 무역마찰을 역으로 활용한 양국 시장 공략 등을 추진

단기적으로는 수출 둔화에 따른 경기후퇴를 억제하기 위한 재정의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

- 최근 초과 세수 등에 따라 정부 부문의 자금잉여가 크게 늘어나면서 동 부문의 자금잉여/GDP 비율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어, 전반적인 재정의 흐름이 오히려 경기 활성화와 역행하는 모습(〈그림 10〉 참조)
- 경제성장을 주도해 온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한 정부의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그림 10] 제도부문별 자금과부족 추이



자료 : 한국은행 ECOS.

주 : 경상GDP 대비 비율(%)의 이전 4분기 평균.

강 두 용
(선임연구위원·동향분석실)
dykang@kiet.re.kr
044-287-3205